J Korean Acad Nurs Adm (간호행정학회지)
Vol. 21 No. 3, 308-316, June 2015
ISSN 1225-9330 (Print) | ISSN 2288-4955 (Online)
http://dx.doi.org/10.11111/jkana.2015.21.3.308

연구간호사의 연구중심병원사업 인지도가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역량 및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조경미 · 김양균

경희대학교 의료경영학과

Effects of Project Perception of Research Nurses from Research-driven Hospitals, Research-relevant Performanc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Research Capacity and Job Satisfaction

Cho, Kyoung-Mi · Kim, Yang-Kyun

School of Management, Kyung Hee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level of project perception for those nurses from research-driven hospitals and to analyze the effect of research-relevant performance in the health care field focusing on the mediated effect of research capacity and job satisfaction.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June, 2014 to July, 2014, and participants were 106 research nurses in Research-driven hospitals.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Results:** As a result, Research-relevant performance according to project perception of research nurses from Research-driven Hospital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research capacity and job satisfaction had a mediating role. Evaluation System Perception wa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Research Capacity ($p<.001$), Research Capacity wa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Job Satisfaction ($p<.001$), Job Satisfaction wa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Research Performance ($p<.001$)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research capacity building and job security research nurses are able to contribute to improving research performance of research-driven hospitals.

Key Words: Research-driven hospitals, Research nurse, Research performance, Job satisfaction, Research capacity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정부는 임상자원과 아이디어가 풍부한 병원을 중심으로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연구중심병원 사업은 병원이 연구의 주체가 되고, 병원 시스템을 연구하기 좋은 환경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병원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지원해 주는 정부 사업이다. 이는 병원이 최적의 연구환경과 인프라를 구축하여 산·학·연 연구의 플랫폼이 되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다학제 간 연구를 통해 새로운 치료기술 및 치료제·기기를 개발해 보건의료수준 향상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의미이며, 병원의 진료 및 임상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기초·임상·중개연구 성과의

주요어: 연구중심병원, 연구간호사, 연구성과, 직무만족, 연구역량

Corresponding author: Kim, Yang-Kyun
School of Management, Kyung Hee University, 26 Kyunghee-dearo, Dongdaemun-gu, Seoul 130-701, Korea.
Tel: +82-2-961-0047, Fax: +82-43-713-8905, E-mail: lukekim@khu.ac.kr

- 이 논문은 제1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추가 연구하여 작성한 것임.
- This article is an addition based on the first author's doctoral dissertation from Kyung Hee University.

Received: Mar 30, 2015 | Revised: Apr 21, 2015 | Accepted: May 14, 2015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실제 적용을 통한 환자중심의 연구(Patient-based Research)를 지향하는 것이다[1].

보건의료기술진흥법 15조에 의한 연구중심병원 연구인력은 연구참여임상의사, 연구전담의사, 박사급연구원, 석사급연구원, 연구간호사, 연구관리 직원 등이 포함된다. 이 중 연구간호사는 의료인에 해당하는 연구인력으로서 연구간호사의 자격기준은 '보건의료분야에서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간호사'로 정의되어있다[2].

본 연구는 연구간호사의 연구중심병원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사업 인지도 및 평가체계 인지도로 구분하여 인지도가 연구중심병원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경제적 성과 및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며, 특히 연구간호사의 연구중심병원사업 인지도가 연구역량 및 직무만족을 매개로 하여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전문직으로서 간호는 과학적 지식체에 기초하여 임상적 판단과 업무수행을 함으로써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그 결과 사회가 요구하는 간호의 전문적 책임을 다 함으로써 간호의 자율성을 확립하게 된다[3]. 임상간호사는 간호 실무에서 경험하는 간호 문제를 규명하고, 이를 해결하는 연구에 가장 적격인 인력이라고 하였고, 연구를 통해 과감히 간호방법 및 절차를 개선해 나가는 시도를 해야 진정한 임상발전 및 환자간호의 질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하며 임상간호사의 연구활동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4]. 병원현장에서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환자중심의 연구, 다학제적인 연구인력의 참여, 실용화된 연구의 축이 되는 플랫폼 역할을 목표로 하는 연구중심병원 사업은 간호사에게도 중요한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연구중심병원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하여 연구인력들의 사회적 공감대는 매우 중요하다[5]. 우리나라 연구중심병원사업은 시작 초기 시점으로 관련된 주제의 연구는 미흡하며, 그 동안 연구중심병원 사업의 성공을 위한 제도화 및 전략 등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는 의사와 이·공계 박사급 연구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중심병원에 종사하는 연구간호사의 연구중심병원사업 내용에 대한 인지도를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인지도가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서 연구중심병원 사업의 성공과 연구인력으로서 간호사의 역할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용어정의

1) 연구중심병원사업

우리나라 연구중심병원사업은 05년부터 연구중심병원 개념을 도입하여 시범사업형태로 R&D 연구 사업을 추진하였다. 연구비 지원은 특정 연구분야를 활성화시키고 연구성과를 달성하려는 목적에는 성공하였으나 연구비 지원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연구도 종료되는 등 병원의 연구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에 한계가 있었으며, 이에 정부는 2010년부터 진료중심 병원환경을 연구중심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연구중심병원의 제도화를 추진하였고「보건의료기술진흥법」개정(2011.8.4)을 통하여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기준을 개발하였으며[6], 지정된 연구중심병원의 육성을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중심병원사업 인지도 항목은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이 포함된 사업인지도 및 주요 평가항목이 포함된 평가체계 인지도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연구중심병원사업 인지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 연구역량

연구역량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5조에 제시된 연구기본역량 및 연구역량의 질 평가항목과 국가과학기술 혁신 역량평가[7]에서 사용된 평가항목들 중에서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맞게 문항을 구성하였다. 연구역량의 주요 항목은 연구조직, 연구인프라, 네트워크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연구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직무만족

직무만족이란 개인이 직무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로서, 직무와 직무 경험의 평가 시 발생하는 유쾌하고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의미하며[8], 본 연구에서 직무만족의 주요 항목은 보상, 업무, 조직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음을 의미한다.

4) 연구성과

연구성과는「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5조」연구중심병원 지정평가사업 및「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8호」에 의한 연구성과를 의미한다. 주요 항목은 경제적 성과 및 사회적 성과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연구성과가 높음을 의미한다.

3. 연구모형 및 가설

우리나라 병원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시스템 개편, 병원의 연구개발 인프라 강화, 인적자원 확

충, 정부의 지원 및 사회적 인식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9]. 특히 병원의 전반적이 시스템이 개편되기 위하여 병원의 모든 종사자들의 인식전환, R&D가 장려되고 목표가 될 수 있는 관리체계의 획기적인 개편, 다학제적 협력과 개방적 혁신의 추구 등이 필요하며, 병원의 전반적이 시스템이 진료 뿐 아니라 R&D가 병원의 핵심 사업이며 지향점이라는 인식을 갖고 움직일 수 있도록 모든 병원 임직원의 의식과 행태를 바꾸는 것이 연구중심병원사업의 성공을 위한 관건이라고 하였다[1,9]. 또한 연구중심병원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은 중요하다고 하였다[1,10] 이와 같이 연구중심병원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중요한 요소이다.

연구간호사의 경우 법적으로 지정된 연구인력으로서 연구중심병원사업의 성공을 통하여 단순히 연구보조업무가 아닌 핵심 연구인력으로서의 역할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직종이다. 현재 연구중심병원은 사업초기 시점으로 연구인력 인지도, 연구성과, 연구역량 등 관련 연구가 미비한 상황이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설문조사, 정책적 논의, 해외사례 등을 통하여 언급되었던 연구중심병원사업에 대한 인지도, 연구성과, 연구역량, 직무만족과의 관계, 특히 연구중심병원 인지도가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연구역량과 직무만족의 매개역할에 대하여 연구간호사를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Figure 1).

1) 가설 1

연구중심병원사업 인지도는 연구성과에 정(+)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

- 1.1 사업인지도는 경제적 성과에 정(+)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
- 1.2 사업인지도는 사회적 성과에 정(+)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
- 1.3 평가체계 인지도는 경제적 성과에 정(+)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
- 1.4 평가체계 인지도는 사회적 성과에 정(+)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

2) 가설 2

연구중심병원사업 인지도가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무만족이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3) 가설 3

연구중심병원사업 인지도가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연구역량이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4) 가설 4

연구중심병원사업 인지도는 연구역량에 정(+)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

- 4.1 사업인지도는 연구역량에 정(+)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
- 4.2 평가체계 인지도는 연구역량에 정(+)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

5) 가설 5

연구중심병원사업 인지도는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

- 5.1 사업 인지도는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
- 5.2 평가체계 인지도는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

6) 가설 6

연구역량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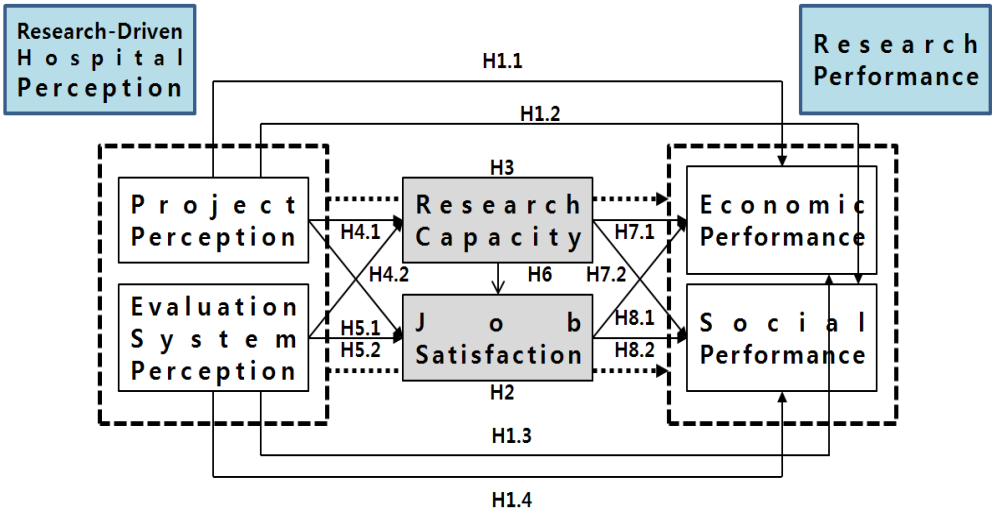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model.

7) 가설 7

연구역량은 연구성과에 정(+)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

- 7.1 연구역량은 경제적 성과에 정(+)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
- 7.2 연구역량은 사회적 성과에 정(+)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

8) 가설 8

직무만족은 연구성과에 정(+)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

- 8.1 직무만족은 경제적 성과에 정(+)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
- 8.2 직무만족은 사회적 성과에 정(+)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주관적 척도에 의한 조사연구로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2014년 6~7월 두 달 동안 연구중심병원의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자료를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활용하였다. 연구중심병원에 소속된 연구간호사 106건의 응답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경희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IRB 승인(승인번호: KHSIRB-14-063 (EA))을 득한 후 진행하였다.

2.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 내용은 연구중심병원사업 인지도 10문항, 연구역량 15문항, 직무만족도 10문항, 연구성과 9문항의 총 4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연구중심병원사업 인지도

「보건산업기술진흥법 15조」에서 제시된 연구중심병원사업의 필요성 및 평가지표 관련 사항을 연구자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이며 사업인지도, 평차체계 인지도의 2개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인지도의 주요 내용은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이며, 평가체계 인지도의 주요 내용은 연구인력, 연구전담조직, 연구정보관리 인프라,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및 사업화, 중점 연구분야, 연구비 투자,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각 항목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평가체계 인지도 Cronbach's α는 .96, 사업인지도 Cronbach's α는 .86으로 나타났다.

2) 연구역량

연구역량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5조에 제시된 연구기본역량 및 연구역량의 질 평가항목과 국가과학기술 혁신 역량 평가에서 사용된 평가항목[7]들 중에서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맞게 문항을 구성하였다. 총 15문항으로 연구조직, 연구인프라, 네트워크의 3개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조직의 주요 내용은 연구행정관리체계, 연구인력에 대한 인사규정, 연구비계정, 연구전담조직 등이며, 연구 인프라의 주요 내용은 연구정보관리를 위한 시스템, 연구시설 및 장비 투자, 연구인력 지원, 연구 관리자 지원, 인력교육 등이다. 네트워크의 주요 내용은 산·학·연 공동연구, 국제협력, 연구자원 개방 및 지원, 기관 내 연구자간의 협력, 연구문화, 연구자간의 소통 등이다.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각 항목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였다.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92로 나타났다.

3) 직무만족

직무만족은 Hallowell[11]의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문항 중에서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맞게 문항을 구성 하였다. 총 10문항으로 보상, 조직, 업무량의 3개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상의 주요 내용은 인센티브, 성과보상 등이며, 조직의 주요 내용은 교육체계, 지식증가, 연구부서의 중요도, 신뢰, 불만 등이다. 업무의 주요 내용은 업무량, 스트레스 등이다.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각 항목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였다.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88로 나타났다.

4) 연구성과

연구성과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5조」 연구중심병원 지정평가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8호」에 제시된 내용을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맞게 문항을 재구성하였다. 총 9문항으로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의 2개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경제적 성과의 주요 내용은 지식재산권, 기술료 수입, 사업화 실적, 연구수익 증대, 국제협력 등이며, 사회적 성과의 주요 내용은 일자리창출, 타 분야의 파급효과, 국민경제 기여, 국가경쟁력 제고 등이다.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각 항목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였다. 신뢰도는 경제적 성과 Cronbach's α는 .97, 사회적

성과 Cronbach's α는 .97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 수행의 구체적 실증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이용하였다.
-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사는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α)계수를 사용하였다.
-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연구중심병원사업 인지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Independent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검정하였다.
- 모형검증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을 실시하였으며, 구조방정식을 통한 분석결과 도형제시를 위해 Amos 21.0을 사용하였고, 구조방정식에 의한 경로계수를 제시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연구중심병원 사업 인지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30대 63.2%, 20대 이하 21.7%, 40대 13.2%, 50대 이상 1.9% 순이며, 근무기간은 2년 미만 35.8%, 2년 이상 5년 미만 33%, 5년 이상~10년 미만 24.5%로 나타났다. 학력은 학사 89.6%, 석사 10.4%, 고용형태는 정규직 40.6%, 비정규직 59.4%, 전체 표본 수는 106명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사항에 따른 인지도를 살펴보면 석사 이상 일수록, 정규직근무 일수록 연구중심병원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다소 높게 나왔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1).

2. 연구모형 검증

1) 확인적 요인분석

연구단위별 단일차원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성요인별로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공분산 구조모형이 연구가설에 적합한 정도를 알아본 결과, x^2=2243.10 p=.000, Q=5.34, RMSEA=.073, NFI=.931, CFI=.943, GFI=.856, AGFI=.819, TLI=.933, Delta 2=.943으로 분석되어 구조방정식의 모형은 검증되었다.

측정변수들의 요인에 대한 신뢰도 평가하기 위해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0.7)와 표준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0.5)을 검증하였다. 두 값을 검증한 결과, 개념 신뢰도와 표준분산추출 모두 기준치인 0.7과 0.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차원성이 입증된 각 연구단위별 척도들에 대하여 서로의 관계가 어떠한 방향이며, 어느 정도의 관계를 갖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은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하였으며, 대부분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판별계수의 값도 일정수준인 0.5 이상으로 나타나 판별타당도에는 이상이 없었다.

Table 1. Comparison of Perception by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06)

Characteristics	Categories	Evaluation system M±SD	t or F (*p*)	Project perception M±SD	t or F (*p*)
Age (year)	≤20	3.85±0.85	0.82	4.05±1.39	1.44
	31~39	3.61±0.98	(.488)	3.75±0.97	(.236)
	40~49	3.42±0.67		3.82±0.67	
	≥50	3.94±0.09		4.50±0.00	
Length of career (year)	<2	3.64±1.00	0.11	3.83±1.10	1.12
	2.0~4.9	3.64±0.90	(.923)	3.60±0.82	(.343)
	5.0~9.9	3.59±0.85		4.06±1.16	
	≥10	3.50±0.47		4.00±0.50	
Educational background	Bachelor	3.61±0.91	0.02	3.81±1.03	0.05
	Master, PhD	3.68±0.81	(.888)	3.95±0.76	(.822)
Employment Type	Permanent	3.63±0.75	0.15	4.00±1.05	3.57
	Temporary	3.62±0.98	(.702)	3.71±0.99	(.062)

2) 구조방정식을 통한 경로분석

구조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연구모형의 경우에 다소 수치가 적합도에 미치지 않아 수정지수의 공변량, 잔차를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오차항 등을 연결하여 수정모형을 제시하였다.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카이스퀘어값 896.10, NFI .914, CFI .889, GFI .903, AGFI .897, TLI .926, RMSEA .075로서 양호하게 나타났다.

3. 연구가설 검증

연구중심병원사업 인지도가 연구성과에 정(+)의 영향이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면, 사업인지도가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경로계수(β=-.10, p=.334),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에 경로계수(β=.04, p=.668)로 유의수준 p<.05 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평가체계 인지도가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경로계수(β=.00, p=.978),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에 경로계수(β=-.01, p=.91)로 유의수준 p<.05 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1. 연구중심병원사업 인지도는 연구성과에 정(+)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이 기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중심병원사업 인지도가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무만족 및 연구역량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평가체계 인지도가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무만족의 간접효과는 유의수준 p<.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2. 연구중심병원사업 인지도가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무만족이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역량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평가체계 인지도가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연구역량의 간접효과는 유의수준 p<.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고,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연구역량의 간접효과는 유의수준 p<.05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3. 연구중심병원사업 인지도가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연구역량이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중심병원사업 인지도는 연구역량에 정(+)의 영향이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면, 사업인지도가 연구역량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에 경로계수(β=-0.14, p=.265)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평가체계 인지도가 연구역량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에 경로계수(β=.48, p=.000)로 유의수준 p<.001에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따라서 '4.1 사업인지도는 연구역량에 정(+)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는 기각되었으며, '4.2 평가체계 인지도는 연구역량에 정(+)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의 경우에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이는 평가체계 인지도가 높은 경우에 연구역량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중심병원사업 인지도는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이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면, 사업 인지도 경로계수(β=-.04, p=.684), 평가체계 인지도 경로계수(β=.11, p=.359)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5.1 사업인지도는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 '5.2 평가체계 인지도는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 모두 가설이 기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역량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이 있을 것인지를 살펴보면 경로계수(β=.45, p=.000)로 유의수준 p<.001에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따라서 '6. 연구역량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의 경우에 가설이 채택되었으며 이는 연구역량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역량이 경제적 성과 및 사회적 성과에 정(+)의 영향이 있을 것인지를 살펴보면 경제적 성과 및 사회적 성과 경로계수는(β=-.12, p=.217; β=.06, p=.567)으로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7.1 연구역량은 경제적 성과에 정(+)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와 '7.2 연구역량은 사회적 성과에 정(+)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의 경우에 가설이 기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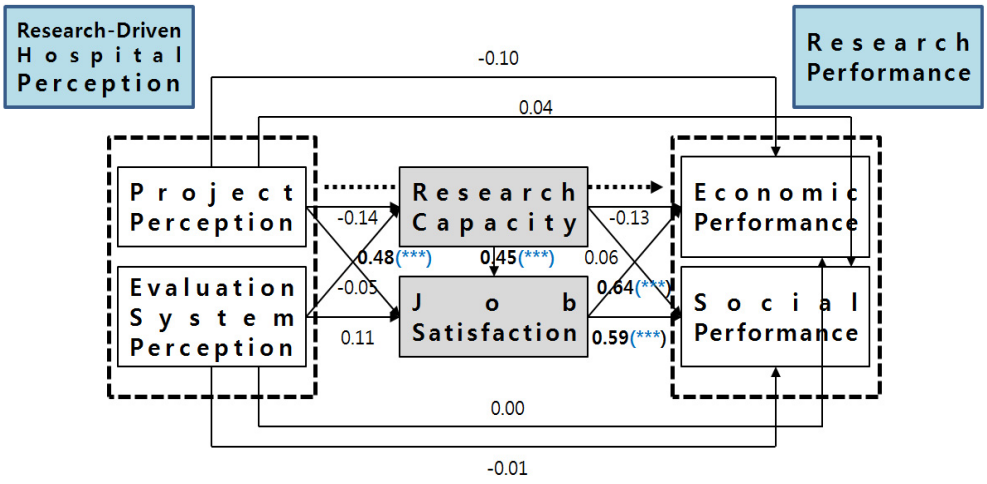
직무만족이 경제적 성과 및 사회적 성과에 정(+)의 영향이 있을 것인지를 살펴보면 경제적 성과 경로계수(β=.64, p<.001)로 유의수준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직무만족이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에 경로계수(β=.58, p<.001)로 유의수준 p<.001수준에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8.1 직무만족은 경제적 성과에 정(+)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와 '8.2 직무만족은 사회적 성과에 정(+)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의 경우에 가설이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연구 성과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Tables 2, 3)(Figure 2).

논 의

본 연구는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의 연구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중심병원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고 인지도가 연구성과 미치는 영향, 특히 연구역량과 직무만족의 매

개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간호사의 연구중심병원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세부항목에서 사업인지도에 비하여 평가체계 인지도가 낮은 점수를 보였다. 평가체계는 연구중심병원사업의 주요 내용으로 연구 거버넌스, 연구실적, 네트워크, 인력확보 등의 사업 핵심지표를 포함



*p< .05, **p< .01, ***p< .001

Figure 2. Structural model analysis.

Table 2. Path Coefficients of Structural Model

Path			Path coefficients	SE	CR	p
Economic performance	←	Project perception	-0.10	0.090	-0.966	.334
Social performance	←	Project perception	0.04	0.104	0.430	.668
Economic performance	←	Evaluation system perception	0.00	0.100	0.028	.978
Social performance	←	Evaluation system perception	-0.01	0.116	-0.113	.910
Research capacity	←	Project perception	-0.14	0.111	-1.114	.265
Research capacity	←	Evaluation system perception	0.48	0.120	3.855	< .001
Job satisfaction	←	Project perception	-0.05	0.103	-0.407	.684
Job satisfaction	←	Evaluation system perception	0.11	0.115	0.918	.359
Job satisfaction	←	Research capacity	0.45	0.111	4.126	< .001
Economic performance	←	Research capacity	-0.13	0.095	-1.235	.217
Social performance	←	Research capacity	0.06	0.109	0.572	.567
Economic performance	←	Job satisfaction	0.64	0.097	6.120	< .001
Social performance	←	Job satisfaction	0.59	0.109	5.816	< .001

Table 3. Mediator Effects of Job Satisfaction and Research Capacity

Variables	Path	Coefficient	p
Research performance	Project perception → Job satisfaction → Social performance	.06	.477
	Project perception → Job satisfaction → Economic performance	.05	.407
	Evaluation system perception → Job satisfaction → Social performance	.21	.010
	Evaluation system perception → Job satisfaction → Economic performance	.17	.162
Research performance	Project perception → Research capacity → Social performance	.04	.475
	Project perception → Research capacity → Economic performance	.02	.445
	Evaluation system perception → Research capacity → Social performance	.17	.009
	Evaluation system perception → Research capacity → Economic performance	.07	.014

한다. 평가체계 인지도는 연구중심병원사업의 주요 목적 및 방향성 등에 대한 이해를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항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간호사들의 연구중심병원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연구 행정직, 석사급 연구원, 연구보조 인력보다도 낮은 점수를 보였다[10]. 이는 연구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역할 정립 부족, 불안전한 고용형태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13,14].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연구간호사의 연구중심병원사업 인지도는 연구성과와 직접적으로 유의한 관계는 없었으나 연구중심병원사업 평가체계인 연구거버넌스, 연구실적, 연구 네트워크, 인력확보 등 사업 핵심지표에 대한 인지도 증가는 직무만족을 매개로 하여 사회적 성과인 일자리 창출, 타 분야의 파급효과, 국민 경제, 국가 경쟁력 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연구중심병원 평가체계 인지도 증가는 연구역량을 매개로 하여 사회적 성과인 일자리 창출, 타 분야의 파급효과, 국민 경제, 국가경쟁력 뿐만 아니라 경제적 성과인 지식재산권, 기술료수입, 사업화 실적, 병원의 연구수익, 국제 협력 등의 성과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구간호사의 현황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연구중심병원사업에 대한 인지도 확산을 위한 교육과 함께 직무만족 및 연구역량 강화가 함께 나타날 때 연구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연구간호사의 실정은 직무규정, 임금보상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국가 차원의 시험이나 자격제도가 없으며, 병원 등에서 내부적 자격기준을 두어 개인 연구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임상시험센터 등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전무할 실정이다.

Bowen & Rice[15]는 연구간호사란 임상시험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운영하는 사람으로 책임연구자의 지휘 하에 의약품임상시험관리 기준의 원칙에 따라 임상연구/시험의 조정과 수행에 책임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였고, Kang & Kim[13]은 임상시험의 수행 및 피험자 보호와 관련된 규정과 지침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연구계획서와 관련 규정에 따라 임상시험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하고, 자료를 유지함으로써 임상시험의 과학성과 윤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간호사라고 하였다. Ganter와 Bednaz[16]는 간호사 이외에도 책임연구자를 도와 임상시험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사람으로 약사 또는 의료지식을 갖춘 진료 보조자 등이 있을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을 연구코디네이터라고 하며, 이중 간호사가 이 역할을 담당할 때 연구간호사라고 하였다.

이상의 문헌들을 종합해 볼 때 연구간호사의 대부분의 역할은 연구지원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연구지원의 구체적인 업무는 책임연구자로부터 위임 받는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임상시험 전 과정에 걸쳐 피험자를 직접 보살피고 그들과 상호작용 하는데 있어서 가장 직접적이면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역할이다. 특히 연구책임자가 임상시험에 전념할 여건이 되지 못하므로 임상시험의 대부분을 연구간호사에게 일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더욱 그러하다.

병원이 중심이 된 연구는 보건의료분야의 이미 진행되고 있는 패러다임이다[1]. 이와 관련되어 정부중심의 연구중심병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연구간호사도 이에 따른 확고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이다. 우선 연구중심병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이 분야의 관심과 교육이 요구되며 연구간호사의 위치에서 성과를 보여 줄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연구하는 간호사를 위한 기관 혹은 협회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보상 및 인센티브 등을 통하여 직무만족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진 외국은 이미 병원중심의 연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병원이 연구의 플랫폼이 되어 산업계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기술 성공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다학제간의 연구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연구간호사의 역할도 중요시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연구간호사의 처우는 열악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분석자료 조차 제대로 없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결 론

정책적으로 병원중심 연구의 중요성이 가시화된 현시점에서 연구간호사의 역할 정립을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연구간호사는 연구중심병원의 연구인력으로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되어 있으나[2,12],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인지도는 타 연구인력 대비 가장 낮으며[10] 이들의 자격 및 역할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다. 향후 임상현장에서 연구간호사를 대상으로 병원중심 연구의 중요성, 연구중심병원사업 등에 대한 교육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직무 분석 및 현황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그 결과가 연구중심병원 사업의 평가기준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연구중심병원의 연구인력으로서 연구간호사는 고유의 독자적 역할이 확립되고, 역량이 강화되어 병원 연구시스템 안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연구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1. Fostering Research-Driven Hospital Planning: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12. November. Report.
2. Research-Driven Hospital Designation Guid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public of Korea; 2012 December.
3. Health care industry advancement plan for the future welfare society realizes: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2010. August. Report.
4. Park JW. Barriers and facilitators to the research activity in nursing practice. Clinical Nurse Research. 1997;3(1):235-252.
5. Jung SH. Key Success Factors of the Research-Driven Hospital business. 2012 No4. Policy Report.
6. Development of evaluation indicators and methods for Research-Driven Hospital designation: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12. November. Report.
7.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Analysis Report 2012: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2013. Annual Report.
8. Choi, JY, Kim EK, Kim SY. Effects of Empowerment and job satisfaction on nursing performance of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4;20 (4):426-436.
9. Kim GL.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Research-based Hospital model in Korea [dissertation]. Seoul. Yonsei University. 2010. p. 53-100.
10. Researchers survey report of the research-driven hospital: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14. August. Report.
11. Hallowell, R., L. A. Schlesinger, and J. Zornitsky. Internal service quality, customer, and job satisfaction: Linkages and implications for management. Human Resource Planning. 1996; 19(2):20-31.
12. Health Technology Promotion Act Enforcement Rules. 2014.
13. Kang HS, Kim WO, Jeong IS, Baik JM. The working conditions and clinical trial practice of research nurses. Clinical Nursing Research. 2004;9(2):42-55.
14. Kim TE Kim GH. Job status and job satisfaction among clinical research coordinator.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2009;15(3):336-345.
15. Bowen KE, Rice LS. Who is clinical research nurse? Research Nurse. 1998;4(4):1-4.
16. Ganter J, Bednaz S. CRA and CRC salary survey. Applied Clinical Trials. 1998;7(7):38-50.
17. Yang YH, Gu MO. Research related activities andi its related factors in clinical nurse.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05;12(3):421-429.
18. Shin YC, Park YC. An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quality of medical services in hospital. Social Science Research. 2007; 23(2):251-279.
19. Oh EG, Oh HJ, Lee YJ. Nurses research activities and barriers of research utiliz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4;34(5):838-848.